

죽은 조상의 영들은 전부 후손 속에 있다

사람을 이 세상에서 영적 동물이라고 합니다. 영이 신이기 때문에 신적 동물이 라는 이야기죠? 사람의 마음이 영이라고 했는데 사람이 죽는 순간 마음이 떠나가 요? 아니요? 사람이 죽을 때 영이 죽는 거예요. 사람의 영이 떠나는 것이 아니고 영이 죽기 때문에 사람이 죽는 거예요.

나라는 주체의식이 사망의 신

영 자체가 생명이고, 사람의 생명 자체가 하나님의 영이요. 하나님의 영이 사람의 속에 왜 있느냐 하면 사람이 하나님의 자식이요. 사람이 하나님의 자식인 고로 사망더러 하나님이라고 말을 해야 옳는데, 마귀가 하나님을 점령하여 사람을 만든고로 마귀가 사람이라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도로 하나님이 되면 영원무궁토록 살게 되면서 마귀가 발붙일 곳이 없어져요. 마귀는 철천지원수 지간이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원수가 마귀인고로 마귀가 사망의 신이요, 사망의 신이 사자귀신이요. 그 사자귀신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인간 속에 나라는 주체의식이 사망의 신이요, 6000년 묵은 붉은용마귀요. 아시겠어요?

하나님 자식을 하나님이라고 해야 돼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은 사람이 마귀에게 포로 된 하나님인 줄 모르고 있죠? 이 세상에 학문이 없었다고 이 사람이 말을 하고 있고, 학문을 논하는 주체가 사람인데 사람 실체를 알지 못하는 것은 그게 학문이 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자식이 하나님이고, 개 자식은 개요, 소 자식은 소요, 말 자식은 말이요, 원숭이 자식은 원숭이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 자식만 사람이란 그 말이 되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식을 하나님이

라고 해야 되고요 그 옛날 단군 할아버지 때부터 사람이 하나님이라고 해왔던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에는 없어요. 인쇄된 사상을 울부짖었는데 인쇄된 사상이라는 말이 사람이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사람이 하나님이라는 말을 해왔던 것은 단군 할아버지가 하나님의 신이 함께하는 할아버지인고로 사람이 하나님이라는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 사람들은 전부 다 마귀가 시키는 대로 가르치는 대로 사람이 라고 불렀어요? 오늘날 하나님을 갖다가 사람이라고 마귀가 그렇게 불렀는데 사람이란 말 자체가 마귀라는 말이에요. 사람은 마귀예요. 왜 그러나 하면 주체 영이 마귀인고로 주체 영이 마귀라면 주인 공이 마귀라는 얘기죠? 사람의 주인공이 마귀인니까 사람이 마귀일 수밖에 없죠?

마귀를 본 순간 마귀의 영이 들어와

그러나 실제로는 하나님이 있었어요. 하나님이었던 인간의 조상 아담과 헤와가 6000년 전에 마귀가 모방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나타나니까 하나님인 줄 알고 눈을 크게 뜨고 바라보는 순간 눈을 통하여 마귀의 영이 들어왔어요. 마귀의 영이 들어와서 나라는 의식이 되는 하나님의 영을 밀어내고 마귀가 주인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양심으로 이 인간 속에 남아 있는데 그 양심이 나라는 의식에 지배를 받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귀에게 지배를 받기 시작한 것이 6000년 전이요. 자손만대로 내려오면서 마귀가 하나님의 자식들을 전부 죽여 왔어요. 하나님의 영이 사람 속에 있을 때에는 사람이 살고 있지만 마귀가 하나님의 영을 죽이면 사람은 죽는 거죠? 이와 같은 사실을 모른다는



구세주 조희성님

것이 이 세상에 학문이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없는 거예요. 사람의 그 학문이 전부 잘못된 왜곡된 학문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우리의 분향 천국이 되는 하늘나라에 들어가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집으로 다시 태어나야, 하나님이 되어야 하나님의 집에 가서 살게 되어 있는 거죠? 그 하나님의 집이 하늘나라죠?

마귀가 죽을 마음을 주시고 죽는다

마귀 새끼들이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천당 가서 영혼이 영원무궁토록 천당에서 산다고 이와 같이 꾀시고, 이와 같이 거짓말해서 오늘날 사이비 종교들이 그걸 논하고 있죠?

사람이 죽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죽는 고로 사람의 영이 하나님의 영인고로, 하나님의 영을 죽이는고로 사람이 죽는 것을 이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식한 사람들이죠? 나이 먹으면 죽는 줄 알고, 나이만 많

이 먹으면 죽는 줄 알고, '아, 얼마 있으면 죽겠구나!' 하고서 자기가 죽을 마음을 먹죠? 마귀가 그렇게 죽을 마음을 먼저 주서 그다음에 지쳐서 쓰러질 때에 마귀가 죽이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마귀가 아주 잔악한 신이고, 마귀가 악한 신인고로 이 악한 신에 의해서 사람들이 전부 죽는 거예요.

자기 속에 조상의 영이 다 있다

죽은 사람의 영이 어디에 가 있느냐 하면, 죽은 사람의 영이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죽은 사람의 영은 자식 속에 있는 거죠? 죽은 사람의 영은 죽은 사람의 마음이에요? 마음은 피의 작용이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의 피가 자식 속에 있는 거예요. 그 자식 속에 죽은 사람의 피가 들어 있기 때문에 부모의 피로 자식이 만들어지죠? 부모의 피가 자식 속에 있죠? 자식 속에 그 부모의 피가 있

이 오늘날 자손만대로 최고의 조상의 영도 우리 살아 있는 사람들 속에 있죠? 그러니까 죽은 사람의 영이 산 사람 속에 있는 거예요. 이걸 이 세상 사람들이 알아? (모릅니다) 모르는 게 무식한 거야, 유식한 거야? (무식한 겁니다) 무식한 게 학문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학문이 없는 거예요. 자기 속에 조상의 영이 들어 있다는 걸 우리들이 널리 전파해서 알려줄 의무가 있죠? 그래 안 그래요?

죽은 사람의 영이 사는 곳이 내세

죽은 사람의 영이 산 사람 속에 있고, 그대로 사람이 죽을 때에는 생명의 영이 되는 하나님의 영을 마귀가 죽여서 죽임을 당해서 죽는 것이므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속에 죽은 사람의 영이 들어서 여러분들 속에 죽은 사람의 영들이 같이 살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혼자서 사는 거예요. 조상님들의 영들이 같이 사는 거예요. 조상의 영이 여러분들 속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게 어머니, 아버지가 내세를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내세라는 거예요. 내세가 무슨 다른 세상이 있는 것처럼 사이비 종교들은 말하죠? 무식해서 그래요. 내세라는 건 죽은 사람의 영이 사는 세계가 내세예요. 아시겠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영이 손자 속에 산다면 내내세(來來世)에서 사는 거예요. 고조 할아버지, 할머니의 영이 고손자 속에서 산다면 내내내세(來來來世) 속에서 사는 거죠? 그래 안 그래요?

이런 것을 모르고 있으니 참말로 이 세상은 캄캄한 세상이요. 어둠의 세상이라고 성경에도 쓰여 있죠? 왜 어둠의 세상인 줄 아세요? 아무것도 모른다는 거예요. 아는 거라곤 그저 밥 먹고 똥 싸는 것

밖에 몰라. 이 사람 말하는 게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거짓말을 말하는 거예요?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현재 마귀의 마음을 품고 있으니

이 세상 사람들이 전부 다 하나님이 도로 되어야 천당도 가고 하늘나라도 가고 극락세계도 가는 거지, 하늘나라 극락세계는 아무나 가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나 간다고 성경에도 쓰여 있고 불경에도 쓰여 있죠? "너희는 성령으로 거듭나야 구원을 얻는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쓰여 있죠?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구원 얻는다는 말이, 성령이 하나님인고로 하나님이 되고, 6000년 전에 하나님이었다는 의미가 들어 있는 말이죠? 다시 태어나야 살아가 있을 때에는 죽은 사람들의 영들도 같이 살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혼자서 사는 거예요. 조상님들의 영들이 같이 사는 거예요. 조상의 영이 여러분들 속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게 어머니, 아버지가 내세를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내세라는 거예요. 내세가 무슨 다른 세상이 있는 것처럼 사이비 종교들은 말하죠? 무식해서 그래요. 내세라는 건 죽은 사람의 영이 사는 세계가 내세예요. 아시겠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영이 손자 속에 산다면 내내세(來來世)에서 사는 거예요. 고조 할아버지, 할머니의 영이 고손자 속에서 산다면 내내내세(來來來世) 속에서 사는 거죠? 그래 안 그래요?

성경에 "너희는 하나님 안에서 행하라" "너희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라!" 그랬죠? 그게 무슨 말이나 하면 현재 하나님의 마음을 품지 않고 마귀의 마음을 품고 있다는 어떤 의미가 있죠? 맹주들은 그걸 몰라. 성경을 읽으면서도 맹주는 그 말의 이면의 뜻을 감지할 못해요. 왜 그러나 하면 나라는 주체의 영이 마귀인고로,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라는 말은 너희들은 지금까지 마귀의 마음을 품고 있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라는 말은 하나님이 되어야 하는 의미도 있죠? 하나님이냐 하나님의 마음을 품지, 사람이 하나님 마음 품을 수 있어? (없습니다) 그래 안 그래요? 너희들은 하나님 되어야 하는 말이에요, 그 말이.*

2001년 1월 13일자 말씀 중에서

[연재] 아브라함 족장시대에서 삼손의 사사시대까지

《3장 야곱의 하나님》



(4) 야곱의 하란 도피생활과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

(4) 야곱의 하란 도피생활과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

장자축복을 받은 야곱은 형 에서의 낫을 피하여 고향 브엘세바(야곱의 출생지는 브엘세바 남쪽 브엘라헤오)를 떠나 하란에서 20년 동안 도피생활을 하였습니다. 도피생활 7년 만에 외삼촌 라반의 두 딸을 취하고 그 이후 7년 동안 11명의 아이들을 낳았습니다. 여기서 야곱 88세에 낳은 다섯 번째 아들 '단'은 성령으로 따라 태어났으며 장자축복을 받았습니다. 단의 장자축복은 은밀한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러한 외삼촌의 제의에 제대로 항변도 못하고 단지 "제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가족이 적더니 제가 외삼촌을 섬긴 이후로 가족의 수가 불어나 때를 이루었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저의 공력에 따라 외삼촌에게 복을 주신 까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붙잡아두려고 하는데 저에게 하루정도 생각할 시간을 주시면 내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고 야곱이 양해를 구했습니다.

야곱의 처지를 불쌍히 여긴 하나님께



야곱의 꿈에 여호와께서 단을 증거함

서 그날 밤 야곱의 꿈에 나타나 그에게 말했습니다.

사람으로 간주됩니다. 야곱이 레아와 라헬에게 장가든 것은 베에나 혼인의 줄은 실례입니다. 하지만 야곱은 처가에서 분가하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고향 브엘세바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야곱아, 너는 라반의 뜻에 따르되 그 대신 네 품삯으로 짐이 있는 양을 달라고 하라. 라반을 위해 6년이 차면 나 여호와와 너를 빛단아람에서 이끌어내리라. 라헬은 브엘세바로 가는 중에 나의 열두 번째 아들을 낳고 죽으리라. 장차 열두 아들은 12지파를 이루고 그 중에 단지파만이 가나안 땅을 떠나 동방으로 향하겠고 오랫동안 종직을 감추리라. 짐이 있는 양이나 여호와가 점지한 야곱의 양떼인 것과 같이, 단의 자손들은 태어날 때 불기에 푸른 반점을 할레로 대신할 것이니라. 그 푸른 반점은 여자가 해산할 때 순산을 위해 나 여호와와 손으로 때린 자국이니라. 내가 그 후손에서 12지파의 수장을 낼 것이니 그가 만국을 다스리리라. 그가 곧 나 여호와니라. 이는 야곱이 나 여호와와 뜻에 좇아 아들 단에게 장자상속을 한 연고로 네 후손을 크게 축복함이라."

이튿날 아침 야곱은 라반을 만나 "지금까지 외삼촌의 가족을 돌봐준 품삯은 양떼 중에 줄무늬가 있거나 얼룩이 있거나 짐이 있는 양으로 대신 나에게 치러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외삼촌의 가족을 돌봐주되 양과 염소 중에 짐이 있는 가족이 생기면 그 가족을 나의 품삯으로 삼고자 합니다." 하고 그에게 제안하였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양떼를 6년 동안 돌봄 Giovanni Benedetto Castiglione (1609-1664) 작

니, 짐이 있는 가족이 거의 없는 것을 아는 라반이 흔쾌히 승낙하였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심으로 실한 양이 새끼를 벨 때 짐박이 양이나 야곱의 것이 되었고, 약한 양이 새끼를 벨 때에는 짐이 있는 양이 나와 라반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야곱은 크게 부유하게 되었으며 양떼와 노비와 약대와 나귀를 많이 소유하게 되었습니다.²

2 창세기 30장 37-39절에 야곱이 푸른 가지를 취하여 그 껍질을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구유에 세워, 양이 물을 먹으려고 할 때 그 가지 그림자가 물위에 비쳐 그 아른거리는 모습을 보게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양이 새끼를 배면 짐이 있는 양이 나왔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유전법칙을 알지 못하는 어둠의 영이 되는 마귀를 기만하기 위한 하나님의 지혜였던 것입니다. 사실은 새끼 양이 짐박이로 나오는 일과

이것을 시기한 라반의 아들들은 아버지의 재산을 훔치기 때문이라고 소문을 퍼뜨리고 몹시 야곱을 미워하였습니다.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보니 전과 같지 아니함을 느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조상의 땅 네 족속에게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야곱은 라헬과 레아에게 말했습니다.

"그대들의 아버지를 보니 그가 나를 대하는 태도가 예전과 같지 않소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난 이렇게 온전하오. 그대들도 알다시피,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열 번이나 변경하였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가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소. 또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기를 '눈을



라반의 삼촌 집에서 야곱과 그의 가족들의 탈출 Julius Schnorr von Carolsfeld, 1829 작

들어 보아라. 가족들과 교미하러 올라간 수컷들은 다 줄무늬가 있거나 얼룩이 있거나 짐이 있는 것이 아니냐? 내가 라반이 네게 한 일을 다 보았기 때문이다. 나는 베엘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를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네 출생지로 돌아가라"고 하셨소."

이때, 라헬과 레아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시하셨으면 곧 떠나자고 찬성하였습니다. 야곱은 아내와 아이들을 나타에 태우고 가족과 종과 그밖의 재물을 가지고 아버지 이삭이 기다리고 있는 가나안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나간 틈을 타서 라헬은 자기 아버지의 드러빔을 훔치고 야곱은 그에게 알리지 않고 가만히 떠났습니다.

창세기 31장 20절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더라* 안젤라

1 데릴사위제: 베에나(Beena) 혼인을 말하며, 이 혼인을 하면 남편은 아내의 마음으로 가서 살며 자녀들은 아내의 지파